

# 생명체 이루는 원천 '윤회의 씨앗'

부처님의 지구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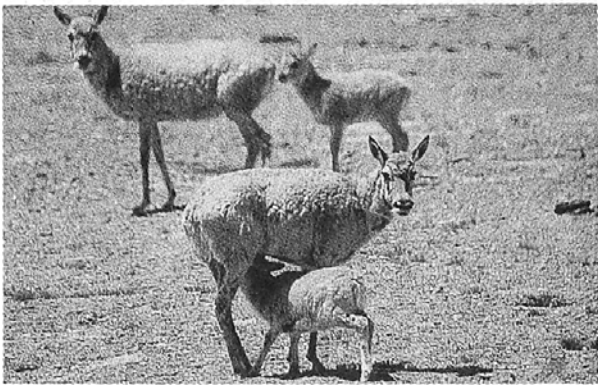
전 재 생 36

## 생명의 자양분

부처님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자양분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자양분은 생명현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현상은 결코 생리적이거나 생태학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정신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붓다는 4가지 종류의 생명을 구성하는 자양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미 태어난 중생의 보존을 위하여, 또한 다시 태어남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네가지 자양분이 존재한다. 네가지란 무엇인가? 물질적인 자양분(糧食)과 두번째로 접촉(接觸)이란 자양분(解食)과 세번째로 의식이란 자양분(識食)과 네번째로 의식이란 자양분(識食)이 있다."

생명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자아의 과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체적인

생리적 과정만도 아니며, 자양분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자양분의 과정의 뒤에는 가혹하게 채찍을 휘둘러대는 굶주림이 놓여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물질적 자양분을 갈망하고 마음은 감각적 접촉에 의한 체험을 위시한 자신의 정



○자양분의 섭취는 생과 죽음의 양면성을 갖는다.

어가는 생명현상에 대해 본질적으로 무관심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물질적인 자양분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자신의 고기를 먹듯이, 애민한 마음으로 절제하길 강조했고, 정신적 자양분의 섭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제하길 가르쳤다. 예를들어 접촉(경합)의 자양분의 섭취는 가족이 찢겨진 목우가 곤충들에게 공격당하는 경험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또한 의도(생각)라는 자양분의 섭취는 작열하는 석탄화로에 강제로 사람을 구인하는 것과 같은 괴로운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식이란 자양분은 마치 왕이 도둑을 잡아놓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백개의 창으로 찌르는 아픔과 같다고 하였다.

물질적 정신적 자양분의 섭취를 최고도로 향락하는 현대문명은 자신의 죽음을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통해 어렵게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 본질적인 생명현상의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현대문명은 물질적 소비가 얼마나 무모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자극적 감각적 경험의 추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인지, 개념적 사유의 확대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지를 예외외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물리적 공해를 정확히 인식할 때, 생명현상의 죽음을 초래하는 생태계의 공해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 물질·감각·사유·의식영역 모두 포함 향락추구의 섭취는 '화'... 절제심 필요

신적 자양분들을 갈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구와 갈망을 연기법에서는 갈이라고 부르고 있다.

갈애는 생명현상의 중심에 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가혹한 채찍으로 내모는 모든 자양분

을 쟁취하고자 하는 갈애와 그것에 의해 성립하는 정신물리적 과정은 존재에게 생명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존재에게 죽음을 부여하는 윤회의 과정이다. "자양분은 그것을 먹는 자를 먹는다."

현대문명은 본질적으로 자양분의 생명을 부여하는 속성에 관심을 가져왔지, 그것을 박탈하는 속성에 관해서는 눈을 가려 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양분의 가혹한 채찍에 얻어맞아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

## '95 신 행 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서울에 올라온지 6년째 되는 박정환씨는 부인 김신희씨와 노점상에서부터 시작해 약삭같이 모은 돈으로 상계동 주공아파트단지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6시부터 밤12시까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 시중들라 바쁘지 않나 헝기라 헝기라 하고 고되지만 박씨는 늘 자

갖고 경제활동을 하라고 가르쳤다.

부처님은 탐 홀리지 않고 놀고 먹는 불로소득과 낭비, 사된 수입을 멀리하라고 했다. 이것은 부정을 막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경제 질서체계를 유지코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금주의 주제

바른 경제생활

### 땀흘린만큼 벌고 낭비 말도록

이웃·사회위해 쓰는 보시생활도 중요

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힘들 때마다 상계동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선 작은 포교당을 찾아 어려운 생활이지만 항상 부처님 가르침대로 남을 도우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박씨는 얼마전부터 상계동 노인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박씨는 "제 작은 정성이 노인들에게 큰 생활의 밑받침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의 고된 장사도 힘들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욱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에게 대해서 늘 올바른 직업윤리를

수입과 더불어 중도사상에 입각한 지출로 균형을 유지하고, 적당한 영리활동을 하라 했다. 즉 소욕(少欲)과 지족(知足)의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모은 수천억 원 점돈을 거둔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쉽게 벌어져서 또 쉽게 낭비하며 황금만능을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다.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얻어진 부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가지게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불교인의 바른 경제생활인 것이다.



○'엄마가 건강하면 온가족이 건강하다.' 길을복지관이 노래방교실을 준비하고 지역 주부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를 제공한다.

## 음악이 흐르는 즐거운 삶 가꿔요

길을복지관 주부노래방교실 열어

노래는 삶의 위안이며 기쁨의 동시이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는 길을복지관(관장 재원스님)이 겨울을 맞아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교실을 연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노래

방 교실은 부처님의 지고한 법향이 담긴 찬불가를 비롯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곡해 놓고 주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부들이 함께 어울려 지는 화합의 장인만큼 많은 주부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노래방 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주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985-0161

## 취미생활 방학특강

목동청소년회관, 28일부터

학원특적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는 요즘처럼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의 중요성을 실감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의 올바른 문화향수와 학습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주간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한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 신행수첩

이번 특강에는 단소, 기타, 미술, 글짓기, 영어회화, 한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각자 자신의 취미에 맞는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02)646-6816

### 장애인에 꿈과 용기를

사랑의 소리방송 봉사자 모집

오는 20일이면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장애인 전용 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이 개국한다.

KBS가 수신기 보급을, 서강대학교가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사랑의 소리방송은 거의 1백%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희망분야에 따라 아나운서·PD·구성작가·취재·리포터 등의 방송전문요원과 대내외 홍보 및 후원모금 활동에 봉사하는 기획·홍보요원, 일

반행정업무 담당요원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포교현장의 장이 될 '사랑의 소리 방송'에 많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02)705-8677

### 역사의 숨결 한눈에 본다

한국의 집 전통문화 강좌

초·중·고등학교의 일선교사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전통문화강좌가 새해 1월8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불교미술과 사찰건축을 비롯해 고고인류학 한국문화사 생활문화 예술 비교문화론 등 전통문화 전반을 고루 다루고 있는 이 강좌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20분까지 각계 권위자들의 강의로 진행된다. 또 이론강의 뿐만 아니라 토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 답사를 통한 현장강의도 실시된다.

수강신청은 선착순 1백명으로 마감한다. (02)266-6938

### 영상으로 빛을 불교미술

부산불교교육원 강좌

불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불교라면 누구나 고민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교미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을 누비며 불교유적을 살펴볼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부산불교교육원이 '슬라이드 배우는 불교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탐의 의미, 불상의 의미, 사찰의 각 구조물 및 조형예술품을 통해 불교사상을 이해하고 선조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강좌는 18일 '불보살의 상호와 신앙' 18일 '세계관, 삼문, 종각' 23일 '지옥세계, 석등, 기타 석조물'을 주제로 오후 6시부터 한시간 반동안 부산불교교육원 법당에서 열리며, 강사는 한정갑 문화국장. (051)466-4080

## "책·염주·호신불 병영추위 녹입니다"

군법당에 포교자로 질실

저는 해군부대에 군불자를 지도하는 한관희 법사입니다.

군대라는 경직된 사회에 젊은 불자들을 지도하다 보면 항상 지로(염주, 불서, 호신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인명의 불자, 군불교후원회, 군에 간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며 매일 후원해 주시는 불자님들 덕분에 군불자 지도나 인격지도 교육 및 수계식에 자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막한 계급사회의 젊은 불자들에게는 이런 한편의 책, 그리고 한개의 염주와 호신불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사회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군불자를 지도하는 법사로서 진심으로 군불교진흥회를 도와주시는 불자, 염주후원금을 주시는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염주와 서적,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작은 정성이 수만갑에 두루 미치는 공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해군법사 한관희 합장. (02)792-3321 (우)140-600 서울 용산체신청 직영우체국 사서함 83호 은행지로 6909804 (군불교진흥회)

## 생활 속의 불교 33

# 보시하고 싶거든 내 집 앞을 쓸어라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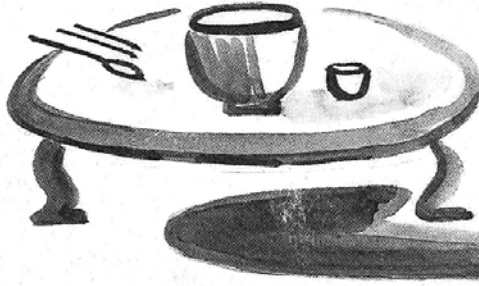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 보는 것, 상대와 나의 처지를 바꿔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가에서 강조하는 보시의 기초가 된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돌 아 난 도리의 실천이 될 것이니 무주상 보시는 그런 마음자리에 깃든다고 말할 수 있다.

침이 생생히 살아 있을 터이니까. 음식을 혼자 먹기보다는 나누어 먹는 게 더 맛있고, 같이 먹는 게 더 즐겁다. 일도 분담해서, 협력해서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쉽다. 예의범절, 도덕, 절서와 같은 것도 같이 지키고 따르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 우리의 삶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대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시, 즉 베풀·나눔·같이 함이란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런 일상의 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매 순간마다의 우리들의 삶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는' 이 자연법칙에 역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보시의 실천이란 먼 곳에 있지 않다. 특별해야만 보시인 것도 아니다. 늘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돌아가는 삶에서 이 '같이 함'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보시행이다. 제물을 나눠 쓰고 밥을 전해 주는 것이 보시행임엔 틀림없지만 절서를 지키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행이다. 역지사지-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처지를 생각해 보는 일도 훌륭한 보시행이다.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남에게 조금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제 소견으로야 그럴 수 있노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소견일 뿐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늘 남의 도움 속에서 살고, 조금씩은 남에게 베풀며 살다. 고로 우리는 늘 같이만 하고 늘 사과해야만 한다.

바른 말, 따뜻한 말, 양보와 친절.

예외와 절서, 이해심, 자비심, 이런 것이 다 보시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 내 집 앞을 쓸어라, 쓰레기를 줄이는 일, 물자를 아끼는 일, 심지어는 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일까지도 보시이다. 제물이 많아도 보시할 수 있는 것도, 법이 너그러워도 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시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나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보시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고 내가 불쾌할 때, 즐거울 때를 뒤집어 생각해 보라. 거기에 보시행에 대한 법문이 가득 들어 있다.

역지사지-남을 위하고 나를 위한 보시행이 그 속에 있다.

협찬: 安宅淳